

형 법

문 1. 甲에게 우리나라 「형법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미국인 甲이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에서 중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
- ② 중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한 경우
- ③ 태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A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
- ④ 일본인 甲이 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미국인 A를 매매한 경우
- ⑤ 한국인 甲이 미국에서 자신의 자녀 A를 살해하여 유기한 경우

문 2.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안에 들어와서 피고인 및 그의 부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.
- ② 정당 당직자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,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고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.
- ③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주점에 대하여 단전·단수조치를 취한 경우,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 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·단수조치를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강간범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뺏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⑤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문 3.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.
- ② 「형법」 제10조제1항의 ‘심신장애인’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.
-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,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.
- ④ 「형법」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,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.
- ⑤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거쳐야 하며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에 기속된다.

문 4.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.
-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④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,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,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다.

문 5.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이 A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- ③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그친다.
- ④ 대리시험을 보기 위해 진실한 응시자인 것 같이 가장하여 시험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⑤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A가 甲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잠근 후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도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甲이 밸브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A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문 6.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이외에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.
- ②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.
- ③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실현한 경우 교사자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사자는 자신이 교사한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진다.
- ④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.
- 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.

문 7. 「형법」 제16조의 ‘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’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 1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
- ② 이전에 24종의 한약재를 배합하여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여기에 6종의 한약재를 추가하여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·판매하는 행위는 「약사법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
- ③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‘활법’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
- ④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
- ⑤ 甲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·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

문 8.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더라도 행위 당시 피고인의 판단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.
- ②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크게 부풀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채권액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.
- ③ 염산에페드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속칭 ‘히로뽕’ 제조를 시도한 경우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습관성의약품제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.
- ④ ‘초우뿌리’나 ‘부자’ 달인 물을 먹여 독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일정량 이상 마시면 부작용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살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.
- ⑤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 병마다 섞은 농약 1.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마시는 경우 마시는 사람의 연령, 체질,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.

문 9. 죄수와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.
- ②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.
- ③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.
- ④ 피고인이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.
- 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. 단,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.

문 10.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甲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.
- ㄴ. 甲이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.
- ㄷ. 甲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乙과 丙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를 인정할 수 있다.
- ㄹ.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 甲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.
- ㅁ.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.

- ① ㄱ, ㄷ
 ② ㄴ, ㄹ
 ③ ㄷ, ㅁ
 ④ ㄱ, ㄷ, ㄹ
 ⑤ ㄴ, ㄹ, ㅁ

문 11. 甲에게 과실범 또는 업무상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는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병원 인턴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
- ② 야간 당직간호사 甲이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
- ③ 甲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난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
- ④ 甲이 'ㅈ'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여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
- ⑤ 甲이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주행하던 중 육교 밑으로 갑자기 뛰어난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

문 12.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피해자들이 새로이 도발한 별개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단도로 상대방의 복부에 자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.
- ②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.
- ③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,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.
- ④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.
- ⑤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.

문 13.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. 단,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- ②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.
- ③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살인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.
- 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
- 문 14. 「형법」 제48조의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.
 -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.
 - ③ 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한 후 대중교통수단으로 운반하기에 곤란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이를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를 몰수할 수 있다.
 - ④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.
 -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.
- 문 15.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甲이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
 - ② 甲이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
 - ③ 甲이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
 - ④ 甲이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하객이 甲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
 - ⑤ 甲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내간 경우
- 문 16.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결과범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기수책임이 부정된다.
 - ② 인과관계는 결과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고의 결과범에 대해 요구되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.
 - ③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는 경우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.
 - ④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과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,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폭력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.
 - ⑤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.

문 17.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.
- ②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겹을 더듬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.
- ③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.
- ④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.
- ⑤ 이른바 ‘기습추행’의 경우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.

문 18.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.
- ②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.
- ③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.
- ④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⑤ 상호간에 공모가 있었다면 공범자중의 1인이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들이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.

문 19.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업무방해죄의 ‘업무’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,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.
-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‘업무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.
- ④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·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.
- 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,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의 발생으로 족하다.

문 20. 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침몰하고 있는 선박에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장 甲에게는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보호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.
- ②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甲이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.
- ③ 甲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투자자 A에게 甲명의로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B에게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④ 甲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A에게서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지만 매매행위에 근접·밀착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- 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A의 직무집행을 甲이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.

문 21.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·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.
- ②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.
- ③ 「형법」 제271조제1항의 유기죄에 있어서 ‘계약상 의무’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 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,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.
-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.
- ⑤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가능하지 않다.

문 22.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,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.
- ②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,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.
- ③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경우 피고인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.
- ④ 기망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,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.

문 23.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.
- ②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,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,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,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.
- ③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 및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.
- ④ 문서의 명의인이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
- 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.

문 24.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뇌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뒤에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.
-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,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도 해당된다.
- ③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,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가 된다.
-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수뢰죄뿐만 아니라 공갈죄도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.
- ⑤ 수뢰죄에서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나,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정할 것이고,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- 문 25. 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,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.
 -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,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.
 - ③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.
 - ④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乙이 위증한 경우 피교사자인 乙은 단순위증죄가 되며 甲은 공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.
 - 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